

## 총각 박사들 이야기와 오지(奧地)국가 여행

김영봉(金榮奉)

〈1971~81 수석연구원·중앙대학교 교수〉

나는 1971년 3월 수석연구원으로 KDI에 들어가서 1년쯤 있다가 상공부 과장으로 옮겨 갔다. 하지만 관료 생활이 체질에 맞지 않아 김만제 원장에게 간청하여 1년 6개월 만에 다시 KDI의 수석연구원으로 돌아와 중앙대학교로 갈 때까지 근무했다.

1971년 12월까지 들어온 박사 11명 중 내 나이가 가장 적었고, 7월에 들어온 송병락 박사, 9월에 들어온 홍원탁 박사,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은 미혼이었다. 우리 셋은 총각인데다 바둑도 좋아하고 술도 마실 줄 아는 편이어서 자연스레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당시 KDI 수석연구원은 월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족 부양의 책임이 없는 우리 세 총각은 퇴근 후 자주 어울려 바둑도 두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나이도 젊고 주머니 사정도 좋다보니 통금 직전까지 술을 마시고도 모자라 반포의 아파트로 돌아와서까지 헤어지지

않고 술을 마신 기억이 난다.

그 후 사공일 박사가 들어오면서 KDI의 총각 박사는 네 사람이 되었다. 그때부터 KDI에는 중매쟁이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결혼상담소가 기업화한 모양이지만, 1970년대 초에는 경제발전으로 살기가 좋아지면서 직업적인 중매쟁이 아줌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나중에 '마담 뚜'라는 이름을 얻은 그들은 수첩에 주로 돈 많은 집안 처녀들 이름을 적어 들고 판검사나 박사 등 유능한 총각들을 찾아다니며 중매를 자청했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에는 미국에서 Ph. D. 학위를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 신문에 소개 기사가 날 정도로 희귀한 존재였고, 당시 부잣집 처녀들이 탐내는 신랑감이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네 사람의 총각 박사들은 그들의 등쌀에 못 이겨 선을 보기 시작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중매꾼들이 드나들었고, 또 순진한 우리는 그들의 녀살과 구변을 뿌리치지 못해 제각기 여러 차례 선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화젯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자숙하게 되었고, 그 많은 중매꾼들을 일절 상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들의 KDI 출입도 뜸해졌다.

우리 네 사람은 그 후 제각기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여 해로하고 있으며, 그 옛날 KDI를 드나들던 중매 아줌마들에 대한 기억은 짓궂은 추억담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또 한 가지 KDI 시절 잊을 수 없는 추억은 해외여행이 어려워 미국이나 일본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1970년대에 비록 공적인 출장이었지만 많은 나라를 여행한 일이다.

KDI 박사들이 연구업무를 위해 미국 출장을 가는 일은 자주 있었지만,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나라에 가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무렵 서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을 여행한 일이 있다.

당시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경제과학심의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정부에서는 여기에 소속된 위원들 중에서 민간외교사절단을 만들어 주로 세계의 오지국가들을 방문케 한 일이 있었다. 이분들을 따라나는 서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같은 신생 오지국가들을 여행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같은 남미 여러 나라를 가 보았다. 물론 자원 외교나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간 것이었기에 사절단을 수행하며 경제학자로서 자문도 하고 통역도 하였지만, 미국이나 일본 여행도 어려웠던 시절에 이런 오지를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KDI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귀중한 소득이었다.

1980년대부터는 정부 관료들의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관료들이 많아져 KDI가 이런 분야까지 협력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1970년대에는 정부가 KDI 박사들을 이런 일에 까지 동원하였다는 것을 밝혀 두고 싶다.